

특별취재

콩 드라이푸드 사업장 준공

정읍칠보면 콩사랑농업회사법인, 2억8500만원 투입 위생·가공시설 갖춰

정읍시 칠보면에 소재한 콩사랑농업회사법인(대표 서현정, 이하 콩사랑)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드라이푸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지역농업 특성화 드라이푸드 가공사업장(이하 드라이푸드 사업장)' 준공식을 가졌다.

20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생기시장과 지역 주민, 소비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했고 기념식 후에는 쉼 쏘리와 떡 체험활동도 가졌다.

시가 주력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드라이푸드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건립된 드라이푸드사업장은 보조 2억5천700만원(지특·사비 각 50%)과 자부담 2천800만원 모두 2억8천500만원이 투입돼 약 355㎡로 신축됐다. 귀

리를 이용한 오트밀과 볶음곡식 등의 드라이푸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위생요소중점 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생장비 및 가공장비 13종을 갖췄다.

콩사랑은 2012년 '두부사랑'으로 창업, 2013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됐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생산해오고 있다. 현재 '은맘으로'라는 자체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5천여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350여가지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서현정 대표는 "엄선된 재료와 진심한 제품이 경쟁력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농업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계약수매와 지역 내 가공업체 제품을 홈페이지에 입점시켜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판매 중인 드라이푸드 상품은 고구마 밀랭이 등이 효자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판매상품 350종에서 직접생산품이 50%, 지역농산물과 가공상품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창업 시 3명으로 시작했던 사업장은 현재 12명의 지역민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드라이푸드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 소득도 2012년 800만원에서 2015년 8억5천5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애인체육관 준공식은 난타 공연단과 기타동호회 연주, 김제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성대한 막을 열고 체육관 준공을 축하하는 테이프 컷팅식 후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와 함께 체육관 건립에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완공

김제시(시장 이건설)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김제시가 후원하고 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 박순배)와 장애인체육관(관장 강정완) 주관으로 22일 김제시장애인체육관에서 체육관 준공식과 더불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장애인체육관 준공식은 난타 공연단과 기타동호회 연주, 김제시립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성대한 막을 열고 체육관 준공을 축하하는 테이프 컷팅식과 건립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체육관 건립에 헌신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어서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장애인인권현장감독과 장애인

극복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과 장애인복지업무에 기여한 바가 큰 민간인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

특히 금번 행사는 김제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체육관이 준공됨으로써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연계하여 향후 장애인복지타운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로써 명실상부 김제시 장애인복지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지역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높아질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오세준 부안군산림조합장

장애인의 날 공로패 받아

오세준 부안군 산림조합장이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일 부안군 장애인 연합회 박일 환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오세준조합장은 부안군 의회 의원으로 재직 당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해 기여한 노고가 인정됐다.

오세준 조합장은 2008년도에도 감사패를 받았고 2013년도에는 사)전북장애인 인권포럼 부설 장애인 정책센터에서 수여하는 전라북도 장애인 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아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꾸준히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 (의장 우천규)는 2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개최 하였다.

20일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병선 의원의 '비원의 시정' 3필의 명마가 되어 대형 재난예방과 살기 좋은 정읍건설, 배정자 의원의 '정읍시 중증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행복플러스 운영방안 개선요구' 안건만 의원의 '정읍시 부채관리 제도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5분 자유발언 후, 제2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후 일정으로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으로 각종 조례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심사가 진행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의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2건이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별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8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4월 25일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며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제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16년도 종자생산 단과과정 교육의 첫날 교육은 교육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김한석 소장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현황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이재홍 소장의 채소종자시장에 대한 강의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성겸 박사의 기초작물생리학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김제 종자생산 단과과정 교육 개강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민간육종연구단지와 종자생명연구단지에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기초인력 수급과 급변하는 세계농업과 시장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 고취로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양성을 위해 개설된 '2016년도 종자생산 단과과정 교육'이 지난 18일 오후 1시간 농업기술센터 상록관에서 교육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종자관련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날 교육은 교육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김한석 소장의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현황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이재홍 소장의 채소종자시장에 대한 강의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성겸 박사의 기초작물생리학에 대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 과정은 종자생산 단과과

정 8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 4월 18일부터 5월23일까지 매주 월요일~화요일까지 6주간 40시간에 걸쳐 종자생산의 실질적인 이론 강의와 현장학습 병행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종자생산 단과 교육 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종자시장현황, 종자사업현황, 종자관련제도, 교양교육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작물교육으로 생리, 재배, 병해충방제, 육종, 토양관리 등으로 진행되며 종묘회사 견학 및 육종가 현장교육도 병행 실시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전부안지사 나눔 콘서트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초청 무료공연

싱그러운 5월 맑고 그윽한 팝스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부안에 울려 퍼진다.

한전 부안지사(지사장 노경석)는 오는 5월 3일 오후 7시 30분 부안 예술회관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주최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초청희망·사랑 나눔 콘서트가 펼쳐진다.

국내 정상급인 서울팝스오케스트라 50여 단원의 연주와 스포츠노성혜진, 테너 김철호, 가수 디아 등이 협연하여 대중의 귀에 익숙한 클래식 팝송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를 팝·클래식으로 재해석하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레퍼토리로 최고 수준의 무대를 선보인다.

입장권은 부안우체국(584-2005), 부안군청 종합민원실(580-4243), 부안읍 사무소(580-3505), 부안 농협 하나마트(581-1023)에서 무료 배부하며, 초대권을 소지하신 초·중·고등학생 이상 부안군민 누구나 6시30분 부터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문의는 한전부안지사 ☎580-2231, 2235에 하면 된다.

한국전력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지역사회의 동반 성장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5년부터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왔으며, 올해에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의 기회가 부족했던 부안군민을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 /부안=이옥수 기자

시·군·자치구 의장협

밥쌀용 쌀 수입 반대안 가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 제198차 시·도 대표회의가 지난 19일 경북 울릉군에서 9개 시·도 대표회장과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최수일 울릉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경상북도대표회장의 내빈소개와 천만호 전국대표회장의 개회사, 이철우 경상북도대표회장의 환영사,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장대진 경상북도회의회장, 최수일 울릉군수의 축사가 있었다.

안건심의를 있어 우천규 전북대표회장이 제안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은 정부가 2014년 쌀 관세화 결정 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유지되었던 밥쌀용 쌀 비중 30% 조항을 삭제하고 WTO에 통보하였으며, 2015년 7월 밥쌀용 쌀 여분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의 합의 없이 처리 하였으며, 이는 매년 쌀 소비량이 2.5% 감소하는 현실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저출산해탈당 위무수입물량 밥쌀용 쌀 수입계획까지 화를 요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방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GIFT SET 1.0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0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0 [750ml 1ea/12%]
GIFT SET 4.0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0 [375ml 5ea/13%]
GIFT SET 6.0 [500ml 정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0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chi Wine
TEL : 083-584-9980
www.gangsanwine.com